

제1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2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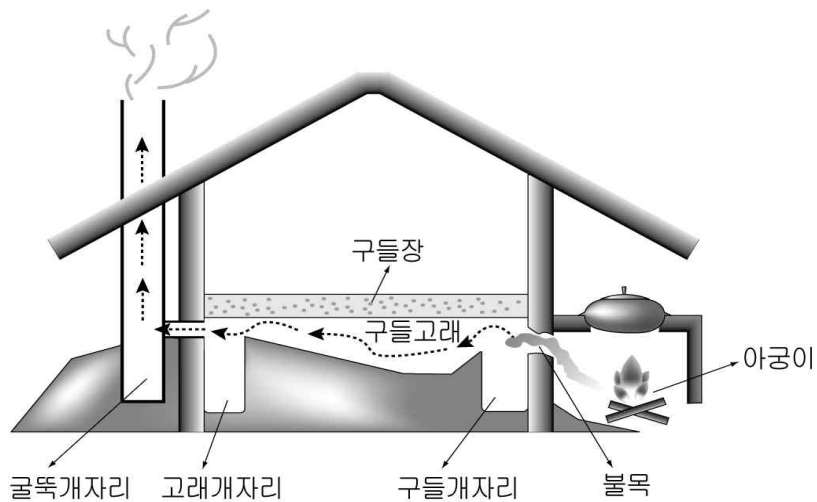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난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 ②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부지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④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 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

2. (물음) ‘탱고’에 대한 방송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럽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 ② 다양한 기원의 하층 문화가 혼합되어 형성되었다.
- ③ 유럽의 종교계와 대중의 반응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 ④ 아르헨티나가 유럽에 수출하는 상품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 ⑤ 아르헨티나 상류층의 수용은 문화적 선망에서 비롯되었다.

3. (물음) 할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곳은?



- ① 불독
- ② 구들개자리
- ③ 구들고래
- ④ 고래개자리
- ⑤ 굴뚝개자리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남학생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점검한 질문표이다.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생 멧돼지의 포획에 대한 토론		
질문 내용	알고 있던 것	알게 된 것
①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②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가?		✓
③ 야생 멧돼지의 출몰 원인은 무엇인가?	✓	
④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⑤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5. (물음) 여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화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 ③ 개인적 일화를 소개하여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답변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상대방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에 착안하여 ‘학교 축제 참가 동아리 선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자 할 때, 이끌어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전거문화유적체험투어’는 광범위한 문화 유적지를 자전거로 돌며 다양한 문화재를 감상하는 문화재 탐방의 한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자전거 탐방 시에는 헬멧과 장갑은 필수이며 옷차림은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고 끈이 없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또한 생수나 소독약 등도 준비하여 위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므로 우측통행을 해야 하고, 복잡한 길에서는 수신호를 보내는 등 자동차에 준하는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 달리기가 목적이 아니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서 가다가 자전거를 세우고 유적 가까이 다가가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전거문화유적체험투어’의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① 축제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한다.
- ② 축제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동아리인지 판정한다.
- ③ 우리 학교 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동아리인지 고려한다.
- ④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⑤ 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청력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신문 기사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 대책에서는 생활 속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해 헤드폰, MP3 등 개인음향기기의 최대 음량을 규제하고, 음량 크기 및 노출 시간에 따른 경고 표시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등의 청각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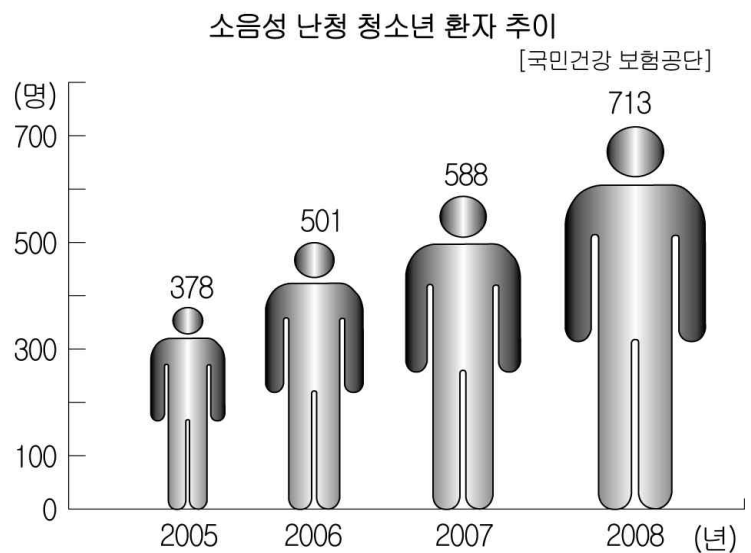
— ○○신문 —

(나) 인터뷰

“청소년층 사이에서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는 청각 장애가 ‘소음으로 인한 청각 상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음향기기의 볼륨을 거의 최고로 해서 듣는데, 이때 크기가 록 콘서트와 거의 비슷한 100~110dB입니다. 헤드폰을 끼면 고막과의 간격이 불과 2cm 정도인데, 록 콘서트의 대형 스피커를 바로 귀에 대고 듣는 꼴이니, 85dB 이상이면 손상을 입는 청각에는 치명적이죠. 또한 소리의 볼륨뿐 아니라 듣는 시간도 청각에 큰 영향을 주고, 한번 나빠진 청각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 심각성을 더합니다.”

— ○○이비인후과 전문의 —

(다) 통계 자료



- ① (가)를 인용하여 법규를 제정할 정도로 생활 소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한다.
- ② (나)를 통해 청력 손상을 막기 위해 헤드폰의 볼륨을 낮추고 사용 시간도 줄일 것을 제안한다.
- ③ (가)와 (나)를 활용해 대책을 마련할 때 허용 최대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기부터 생활 소음에 관심을 가지고 청력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해 급증하는 청소년 난청 환자의 치료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8.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기>의 개요를 수정·보완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제문: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I.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의 개념 ㉠

1.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도모

2. 정서 함양과 교양 증대

II.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의 문제점

1. 방학 기간에 과도하게 편중된 프로그램 ㉡

2. 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

3.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안내 부족

III.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의 개선 방안 ㉣

1.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학기 중으로 분산

2.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 부족

3. 청소년의 문화 관람 예절 교육의 필요성 ㉤

IV. 내실 있는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 촉구

- ①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의 의의’로 수정한다.
- ② ㉡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 체험 참가 현황을 연령별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 ③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III-2와 위치를 바꾼다.
- ④ ㉣에는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프로그램의 자료 제공 및 안내’를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⑤ ㉤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9. 다음은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이 흡연이다. 흡연은 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 감소, 여러 가지 비행 등과 관련되어 정신 건강까지 크게 해친다. ㉠다행히 성인 흡연율은 줄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율은 그렇지 않다.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는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끊기가 매우 어렵다. 담배 속에 들어있는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은 헤로인이라는 마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담배를 오래 ㉡피우다가 끊으면 마약을 끊었을 때와 같은 불안, 초조, 긴장, 손떨림, 불면증 같은 금단 현상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담배 연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게 만든다. 필터 없이 ㉢직접 마시게 되는, 이른바 간접 흡연자들은 흡연자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자기 ㉣덕분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건강을 잃게 된다면 담배의 유혹에 빠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담배는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므로, 아예 멀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 ① ㉠은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겠어.
- ② ㉡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피다가’로 고쳐야겠어.
- ③ ㉢은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어색하므로 ‘담배 연기를’이라는 말을 넣어야겠어.
- ④ ㉣은 부정적 상황이므로 ‘탓’으로 바꿔야겠어.
- ⑤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꿔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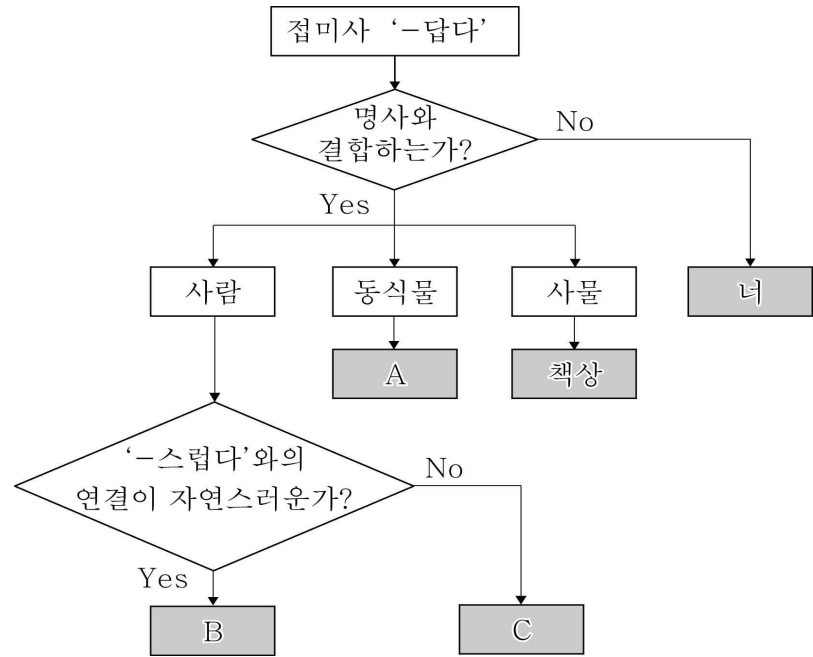
10. 학생회장 선거에서 사용할 홍보 문구이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1점]

<보 기>

- 학교생활을 즐겁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것
- 비유와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여 표현할 것

- ① 가벼워지는 발걸음 흥겨워지는 학교생활
기호 〇번이 여러분과 꿈의 날개를 활짝 펼치겠습니다.
- ② 반복되는 학교생활에 지치진 않으셨나요?
기호 〇번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의 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 ③ 봄엔 희망 여름엔 인내 가을엔 성숙 겨울엔 결실
기호 〇번이 실력이 쌓이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④ 기호 〇번과 함께하면 학교는 놀이공원이 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신나는 학교생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⑤ 여러분의 한 표가 웃음 가득한 학교생활로 이어집니다.
투표용지 기호 〇번에 붉은 입맞춤을 찍어 주세요.

11. 접미사 ‘-답다’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아래와 같이 해보았다. A~C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A	B	C
①	꽃	어른	학생
②	나무	아버지	아기
③	날씨	스승	제자
④	인정	인간	반장
⑤	고양이	여성	사랑

12. <보기>를 바탕으로 ‘표준어사정원칙’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 윗몸, 윗입술, 윗도리
 ㉢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 위작, 위채, 위층
 ㉤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웃웃, 웃국, 웃돈

- ① 사람의 ‘배’는 ㉠의 규정에 따라 ‘윗배’라고 적어야 해.
 ② ‘위턱’은 ㉢의 ‘위층’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해.
 ③ ‘윗니’는 ㉤의 규정에 따라 ‘웃니’로 표기해야 해.
 ④ ㉡와 ㉣는 위아래의 대립 여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는군.
 ⑤ ㉡, ㉢, ㉤는 모두 단어를 만들 때 적용하는 규정이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민족은 처마 끝의 곡선, 버선발의 곡선 등 직선보다는 곡선을 좋아했고, 그러한 곡선의 문화가 곳곳에 배어 있다. 이것은 민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서양 음악에서 ‘도’가 한 박이면 한 박, 두 박이면 두 박, 길든 짧든 같은 음이 끝까지 ㉠지속(持續)되는데 우리 음악은 ‘시김새’에 의해 음을 끝까지 내지 않고 흔들어 낸다. 시김새는 어떤 음높이의 주변에서 맴돌며 가락에 멋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장식음이다.

시김새란 ‘삭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시김새는 김치 담그는 과정과 유사하다. 김치를 담글 때 무나 배추를 조금에 절여 숨을 죽이고 갖은 양념을 해서 일정 기간 ㉡숙성(熟成)시켜 맛을 내듯, 시김새 역시 음악가가 손과 마음으로 삭여냈을 때 맛이 드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재료를 썼는데도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고, 지방에 따라 양념을 고르는 법이 달라 다른 맛을 내듯 시김새는 음악 표현의 질감(質感)을 달리하는 핵심 요소이다.

시김새는 음가를 짧게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본래의 음높이를 흐리게 만드는 요소도 갖고 있다. 이것은 ‘끌어올리는 소리’, ‘끌어내리는 소리’, ‘미끄러져 내리는 소리’, ‘떠는 소리’를 말한다. 이런 음들은 음정적으로 ㉢규정(規定)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음들이다. 이 음들은 어느 높이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위 아래로 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처럼 시김새는 불분명한 음높이를 가지고 있어 악보에 기록할 때 정확한 기록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일정한 음높이와 무관한 기호들로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시김새의 즉흥성 때문이다. 시김새의 이러한 즉흥성은 우리음악의 맛을 한층 더해준다.

그러나 시김새의 ㉣진미(眞味)를 금방 알아채는 일은 쉽지 않다. ‘먹어 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말처럼 우리는 여러 종류의 국악을 여러 음악가를 통해 만나면서 각자에게 맞는 맛을 찾을 수 있다. 시김새의 맛을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입문자(入門者)의 음악과 노련(老鍊)한 음악가의 음악을 비교하거나 또는 동일 음악가의 녹음 자료를 시대별로 ㉤비교(比較)해 보는 것이다.

13. ‘시김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소리의 질감을 다르게 하는 요소이다.
 ② 음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내는 소리이다.
 ③ 음악가의 타고난 능력에 의해 가능하다.
 ④ 음악을 들을 때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⑤ 일정한 음높이와 관련 있는 기호들로 기록된다.

14. [A]의 설명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개요를 세우지 않고 글을 쓰려는 사람은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험한 산에 오르는 등산객과 같다.
 ② 좁은 듯하면서도 슬만한 허리, 둥그스름하게 떠 오른 허벅지, 토실토실한 종아리가 뚜렷이 드러났다.
 ③ 연극과 영화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이 종합되어 완성되는 종합 예술이라는 점에서 서로 같다.
 ④ 문학은 형태에 따라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시는 내용상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누어진다.
 ⑤ 인류 문명이 발달한 원인은 사람이 두 손을 자유롭게 쓰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하며,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 등에 있다.

15. 위 글의 시김새와 <보기>의 재즈가 지닌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재즈는 미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서 활력과 창조력을 지닌 음악이다. 활력은 율동감에서 나오며, 창조력은 즉흥연주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즉흥연주란 작곡하면서 연주하는 것이다. 즉 창조하면서 연주하는 것이다. 악보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연주자의 기분이나 관객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자유를 갈망하던 미국의 흑인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 ① 문화의 특징이 예술에 반영된 결과이다.
 ② 즉흥적이어서 악보에 대한 의존성이 낮다.
 ③ 한 음을 장식하여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④ 한번 공연하고 나면 똑같이 재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⑤ 같은 곡이라도 음악가의 감흥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진다.

16.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어지는데 ② ㉡: 익혀 ③ ㉢: 고치기
 ④ ㉣: 참맛을 ⑤ ㉤: 견주어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구체적인 새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참새? 까치? 제비? 혹은 그것들의 공통점만이 추려진 실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새? 아마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새들의 공통점을 추려내어 상상 속의 새를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새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닭이나 펭귄을 떠올리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새’는 하나의 범주이다. [+동물][+날 것]과 같이 성분 분석을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 조금 전에 ‘새’를 머릿속에 그린 여러분은 성분 분석 이론의 단순한 의미자질 분석에 약간 맥이 빠질 것이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성분 분석 이론의 ‘새’에 대한 의미 기술이 고작해야 다른 범주, 즉 조류가 아닌 다른 동물 범주와 구별해 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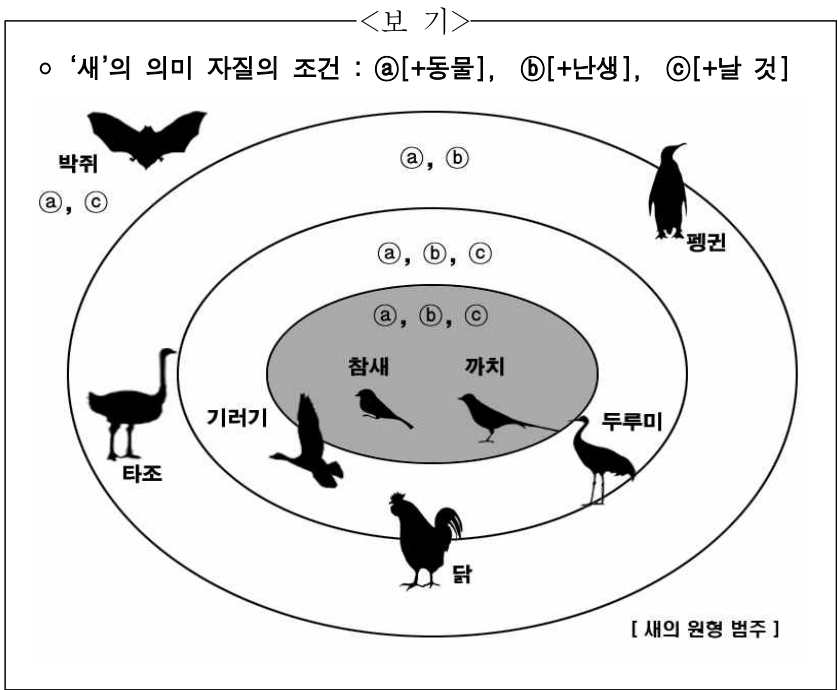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하나의 범주는 경계가 뚜렷한 실재물이며, 범주의 구성원은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왔다. 그리고 범주를 구성하는 단위는 자질들의 집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앞에서 보여 준 성분 분석 이론 역시 그런 고전적인 범주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휘의 의미는 의미 성분, 곧 의미자질들의 총화로 기술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하나의 범주가 필요충분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의 범주를 떠올려 보면, 범주의 구성원들끼리 결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장 원형적인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덜 원형적인 것, 주변적인 것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전 범주화 이론과 차별되는 범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인지 언어학에서 하나의 혁명으로 간주되었다.

이제, ‘새’ 중 새다운 새에서부터 새답지 않은 새까지를 물어본 후, ‘새’의 원형적인 보기에서 주변적인 보기까지 인식의 정도(=대표성)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동심원과 유사한 모양이 나타난다. 이때 범주의 구성원은 가족적 유사성처럼 연쇄적인 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주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범주의 구성원들끼리 가장 원형적인 보기에서 주변적인 보기로 퍼지면서 서로 비대칭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즉, 범주의 원형적인 보기가 주변적인 보기에 비하여 더 특징적이고 우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원형 효과(prototype effect)라고 한다. 이때, 원형적인 보기는 해당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판단하는 데 비원형적인 보기보다 훨씬 시간이 덜 걸린다. ‘참새’와 ‘타조’ 중 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경우, ‘참새’가 ‘타조’보다 훨씬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 습득에서도 원형적인 것이 비원형적인 것보다 먼저 습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 범주 인식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 ② 고전 범주화 이론은 하나의 범주가 충분조건일 때에만 설명이 가능하다.
- ③ 어휘의 비대칭적 동심원 이론은 언어학자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 ④ 원형이론의 원형적 보기는 주변적 보기에 비하여 더 특징적이고 우월하다.
- ⑤ 범주의 구성원은 서로 동등하게 연쇄적인 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경계도 분명하다.

1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까치’는 새들 중에서 대표성이 매우 높다.
- ② ‘두루미’는 ‘참새’보다 대표성이 낮고 ‘타조’보다는 높다.
- ③ ‘기러기’와 ‘닭’은 ㉡의 조건 때문에 대표성이 달라진다.
- ④ ‘펭귄’은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조’와 같은 범주에 있다.
- ⑤ ‘박쥐’는 ㉢의 의미자질이 있지만, ㉡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새의 대표성에서 가장 벗어나 있다.

19.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들에게 ‘과일’을 그려 보라고 했을 때 ‘자두’보다 ‘사과’를 많이 그린다.
- ② 아이들은 ‘채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토마토’보다는 ‘배추’를 먼저 떠올린다.
- ③ 영어권 화자는 우리말을 들을 때 ‘불’ 소리보다 ‘풀’ 소리를 더 쉽게 인식한다.
- ④ 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탈 것’을 발화하고자 할 때 ‘케이블 카’보다 ‘버스’를 먼저 떠올린다.
- ⑤ 정상적인 화자가 목수 연장의 이름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대패’보다는 ‘망치’를 떠올린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나) 양심의 금속성

김현승

모든 것은 나의 안에서
물과 피로 육체를 이루어 가도,

너의 밝은 은(銀)빛은 ㉢모나고 분쇄(粉碎)되지 않아,

드디어 무형(無形)하리만큼 부드러운
나의 꿈과 사랑과 나의 비밀을,
살에 박힌 파편(破片)처럼 쉬지 않고 찌른다.

모든 것은 연소(燃燒)되고 취(醉)하여 ㉣등불을 향하여도,
너만은 물러 나와 호올로 눈물을 맺는 달밤……

너의 차가운 ㉤금속성(金屬性)으로
오늘의 무기를 다져 가도 좋을,

그것은 가장 동지적(同志的)이고 격렬한 싸움!

(다) 새벽 편지

곽재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은 찻잔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 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향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② 갈등에 대한 포용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있다.
- ④ 나약한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자연으로부터 올바른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2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각 연을 평서형으로 종결하여 부드러운 어조를 이루고 있다.
- ② (나)는 중심 대상을 의인화하여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기승전결의 한시 구조를 통해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가), (나)는 모두 공간적 배경을 부각하여 시적 정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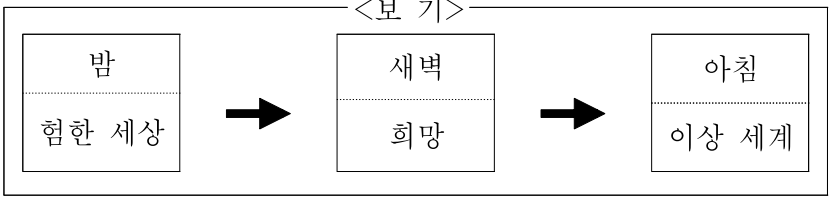
22. <보기>를 참조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어는 시인이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으로, 일반 사람의 보편적 상식과는 상반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 ① ㉠: ‘고원’은 높은 곳이라는 긍정적 속성과 달리 화자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의 공간을 의미한다.
- ② ㉡: ‘강철’은 꺾이지 않는다는 긍정적 속성과 달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 ③ ㉢: ‘모나고’는 둥글지 못하고 까다롭다는 부정적 의미와 달리 화자의 내면에 미치는 긍정적 자극을 의미한다.
- ④ ㉣: ‘등불’은 밝음이라는 긍정적 속성과 달리 화자를 유혹하는 세속적 욕망을 의미한다.
- ⑤ ㉤: ‘금속성’은 냉혹하다는 부정적 속성과 달리 화자가 가질 양심이 엄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23. <보기>와 같이 (다)를 재구성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군.
- ② ‘새벽의 창을 열고’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③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는 새벽에서 다시 밤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은 바람이겠군.
- ④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 향기를 맡기 위하여’에서 이상 세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보여주었군.
- ⑤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에서 밤의 고통이 해소되기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겠군.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의 발생으로 아담 스미스 중심의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자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다. 당시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재고가 쌓이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 경제 침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다. ‘유효수요이론’이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수요, 즉 물건을 살 수 있는 확실한 구매력이 뒷받침 되는 수요가 공급 및 고용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케인즈는 세계 대공황의 원인이 이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이것은 노동자의 감원으로 이어지며, 구매력을 감소시켜 경제의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가 없는 생산은 공급 과다 및 실업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공황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절약은 분명 권장되어야 할 미덕이지만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와 공황을 불러올 경우, 절약은 오히려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케인즈는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여력이 없다면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늘리는 재정 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불황을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케인즈 이론이 수용되면서 점차 안정되어 가던 경제 상황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게 된다. 케인즈의 이론으로는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고,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인 시장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등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고전학과 경제학의 명맥을 유지해 오던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반대하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24. 위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 ①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된 경제학자
 - 수요공급이론의 효과 및 의의
- ② 시장과 정부의 끝나지 않은 경쟁
 -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 ③ 불황에 대처하는 실물 경제의 특징
 -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 방법
- ④ 경제 상황에 따른 경제학자들의 처방
 - 사회 변화에 따른 경제학의 변천 과정
- ⑤ 시대를 앞서간 경제학자들의 몰락과 부활
 - 경제학사로 살펴보는 세계 근현대사

25. 유효수요이론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재물은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다. 퍼내면 늘 물이 가득하지만 길어내기를 그만두면 물이 말라버림과 같다. 따라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로 인해 여인의 기술이 폐쇄해졌다. 이지러진 그릇을 사용하기를 꺼리지 않고, 기교를 부린 물건을 숭상하지 않아 나라에는 공장(工匠)과 목축과 도공의 기술이 형편없고, 그러므로 기술이 사라졌다. 더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를 구제할 방도가 없다.

- 박제가, 「시정(市井)」에서 -

- ① 절약을 권장하면 우물의 물은 항상 가득 차 있겠군.
- ② 경기 침체는 이지러진 그릇을 계속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었겠군.
- ③ 소비가 위축된 원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만드는 여인 때문이겠군.
- ④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사농공상 모두가 곤궁해지겠군.
- ⑤ 정부의 대규모 지출은 기교를 부린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겠군.

2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했다.
- ② ㉡과 ㉢은 동일한 경제 현상 때문에 등장했다.
- ③ ㉡과 달리, ㉢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조절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 달리, ㉡은 경기 침체의 원인을 공급에서 찾고 있다.
- ⑤ ㉠~㉢은 경제 이론들이 규칙적인 주기에 따라 순환됨을 보여준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혁은 그들과 마주 서자 작업복 윗주머니에서 낡아빠진 봉투를 꺼내어 소장에게 내밀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소장은 받아 든 봉투로 동혁의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파업도 좋지만, 삼과 곡괭이들을 들고 몰려와서 사무실을 부수겠다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을 치려나. 아무리 외딴곳이지만 경찰권이 있다는 걸 잘 명심해 두게.”

“우리는 감독조의 잘못된 횡포를 막자는 것뿐입니다. 그 봉투 속에 건의문과 우리들의 연대 서명장이 들어 있습니다.”

“요구 조건은……?”

소장은 봉투를 찢어볼 생각도 않고 손에 든 채 거만하게 물었다. 그는 자기의 당당한 모습을 절대로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평상시처럼 애써 그들을 위엄 있게 제압해야만 했던 것이다. ㉠인부들이 무서운 형세로 연장들을 쥐고 서 있었지만, 소장의 눈에 그것들은 공사장의 제방이나 바윗돌, 바다나 개펄처럼 고정된 풍경의 일부분으로 느껴졌다. 그에게 인부들은 해변의 모래나 조개껍데기 같은 자연의 일부분처럼 보였던 것이다.

<중략>

“소장이 널 아침에 **각서**를 써서 올려 보낸대요.”

“그자를 어떻게 믿어?”

㉡“저쪽에서 부드럽게 나온다면 내일 저녁때쯤 슬슬 내려가 봅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면 될 거 아닌가.”

3함바의 고참 인부가 훨씬 누그러진 태도로 말했고, 동혁이 코웃음 치며 말했다.

“한번 내려가면 다신 못 올라올 겁니다. 사무실 측이 현재 끌리는 건 모레 오전 때문이요. 그 다음부터 칼자루는 저 쪽이 쥐게 됩니다.”

“모두 함께 일으켰다고 그럴 테니 걱정 마쇼. 보복하지 말라는 확답을 얻게 되면 무슨 상관이 있겠소?”

3함바 인부가 말했다. 동혁은 그들을 떠나 대위가 있는 **모닥불** 곁으로 되돌아가면서 말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를 잃으면 말짱 헛것이 될 거요. 잘 생각해서 행동합시다.”

동혁은 인부들이 소장이나 감독조와 맞대어 이제까지 당해 온 수모에 대한 불평을 한탄조가 아닌 직접적인 행동으로 터트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인부들 각자가 지나치게 부당한 조건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삽자루**나 등태가 아니라, 빔을 지고 있는 피로한 낱품 인부들이었다. 동혁이 대위의 옆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대위가 가까스로 머리를 쳐들어 아래 편을 보며 동혁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소?”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난 어쨌야 좋을지 모르겠소. 믿을 만한 사람들까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온 모양이던데…….”

“함바*에 남았던 사람들이 몇 명 올라왔는데, 회사 측이 내일 저녁까지 선을 긋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군요. 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공식적인 타협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동혁은 지글대며 타오르는 기름불을 멍청히 들여다보았다. 대위가 말했다.

“저기…… 장씨 아니오?”

㉣“늙은 사람들은 쫓대가 다 말라비틀어져서, 함바에 남아 있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혹시!”

대위는 머뭇머뭇하며 말했다.

“저들이 **떡밥**으로 보낸 게 아닐까? 나중에 올라온 놈들.”

“모르죠, 매일 희망 없다는 소리나 입버릇처럼 뇌까리는 늙은 인부들이니……. 그렇지만 애초에…….”

동혁은 회미한 동작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기 올라온 것부터가 우리 각자의 자유의사 아녘습니까? 모두들 내려가도 버티고 싶으면 버텨야지.”

“저자들 도로 내려 보내요.”

“내가 뭔데요?”

㉤“지금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에 따라 갈팡질팡 하는데 알게 해 줘야 할 거 아뇨?”

동혁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대위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이불깃을 여며 주고 나서 말했다.

“무서운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어린애처럼 뭐가 또 무섭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아직 모르겠군요. 그렇지만 누가 알아나 줄지 모르겠소.”

동혁은 그렇게 말하고 구부려 세운 무릎 위에 팔을 걸쳐 턱을 괴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모닥불의 윗부분은 얇은 감색 테가 둘러 있고, 그 아래 편은 보다 얇은 어두운 그늘이 저 있으며 가장 아래는 불기가 있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불꽃이 몰릴 때마다 얇은 그늘이 짙은 노랑으로 변했다. 땅바닥을 활고 있는 부분은 정결하고 고운 푸른색이었다. 불길이 땅바닥에 부은 기름 흔적대로 타올라 위로 솟으면서 곧 땅을 떠날 듯이 날름거렸다. 서로 활고 비벼대는 불꽃 머리가 거친 물결처럼 보였다. 동혁은 폐유깡을 들어 불길 위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불길이 확 퍼져 올라 그의 눈썹을 그을렸다. 퍼져오른 불꽃이 다시 낮아지며 아까처럼 끊임없이 춤추고 있었는데, 갇힌 새의 **날갯짓** 같았다. 동혁은 자꾸만 기름을 붓고 싶었다.

- 황석영, 「객지」 -

* 함바 : (토목 공사장 등의) ‘노무자 합숙소’를 뜻하는 일본어

2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을 서술하여 친밀감을 준다.
- ② 대화와 행동을 위주로 사건 전개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반어적인 상황 설정으로 인물과 현실 간의 갈등을 보여 준다.
- ④ 일상적이고 향토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서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보여 준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노동자들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지 않는 ‘소장’의 비정한 모습이 나타난다.
- ② ㉡: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 하는 ‘고참 인부’의 모습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 ③ ㉢: 파업에 냉소적인 ‘대위’에게 자신의 신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④ ㉣: 회사 측의 회유에 흔들리는 인부들에 대한 ‘동혁’의 불만이 나타난다.
- ⑤ ㉤: 나중에 올라온 인부들에 대해 ‘동혁’보다 강경한 ‘대위’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29. 위 글의 ‘동혁’과 <보기>의 ‘나’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 스스로 깊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① 동혁: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라는 것을 보니 당신도 나와 같은 노동자로군요.
- ② 나: 네, 제 삶이 ‘샛강 바닥 썩은 물’처럼 비참하게 느껴져요.
- ③ 동혁: 그렇지만 ‘쭈그려 앉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워야지요.
- ④ 나: 누군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 좋은 줄 알아요? 살다 보니, 삶이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⑤ 동혁: 그 말씀을 들으니 제 앞날도 막막하네요. 저도 결국은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답답해요.

30.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 기>—
소설은 ‘문제적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단순히 존재하고만 있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 명백한 자기 인식의 ‘문제적 개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객지」는 문제적 개인이 현실의 모순을 뛰어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 할 수 있다.

- ① 각서 ② 모닥불 ③ 삼자루 ④ 떡밥 ⑤ 날갯짓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성리학의 리(理)와 기(氣)의 개념은 철학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대표적인 학자인 이황과 이이는 리와 기의 개념을 통해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선악의 문제와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리가 원리·본질 등을 의미한다면 기는 현실 세계의 현상·재료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리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을 ‘불상리(不相離)’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상이 곧 원리라고 할 수 없으며 재료가 곧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리는 리고 기는 기여서 서로 섞일 수 없는데, 이것을 ‘불상잡(不相雜)’이라고 한다. 불상리와 불상잡 중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황은 불상잡의 측면을 강조하여 리를 기로부터 분리한다. 그에게 리란 본연적으로 갖추어진 것이며 ㉠공정(公正)하고 바른 마음이다. 반면에 기는 사사로움에서 비롯된 마음이며 기질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다. 그는 기질의 한계를 벗어나 ㉡선험적(先驗的)으로 주어진 리가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인간이 힘써 실천해야 할 ㉢당위(當爲)라고 생각했다. 즉 이황은 리가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자 도덕 원리일 뿐 아니라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운동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또 터럭만큼의 나쁨도 섞이지 않은 성인의 모습을 원했고 그 근거를 리에서 ㉣도출(導出)해냈다. 리의 본연성이 기의 작용을 받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성인이 되는 방법이라 보았으며 인간 사회에서 리의 발현을 통해 선의지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이이는 근원적으로 리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리는 운동성이 없는 원리의 개념이며, 운동하는 것은 기뿐이라고 주장했다. 리는 스스로 ㉤발현(發顯)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나타날 때 원리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리는 모든 인간에게 무형무위한 원리로 보편적이지만 기는 유형유위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바르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한다. 선악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기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나타나면 악이 되고, 알맞게 발현되면 선이 된다고 보았다. 이이는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리 보다는 개별적인 기의 작용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런 점에서 기질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이는 기의 발현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31. 위 글을 읽고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황	이이
①	본연성 중시	기질성 중시
②	리의 운동성 긍정	리의 운동성 부정
③	개별적 선의지 강조	보편적 선의지 강조
④	리의 현실적 실현 추구	기의 올바른 발현 추구
⑤	리와 기의 불상잡에 중점	리와 기의 불상리에 중점

32. 이황이 <보기>와 같이 말한 근거를 위 글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한림별곡(翰林別曲) 같은 부류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교만하고 방탕한데다 비루하게 희롱하고 절도 없이 좋아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 이황, 「도산십이곡 발(跋)」에서 —

- ① 혼탁한 리가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 ② 현실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 ③ 리와 기가 알맞게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사사로운 기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개별적 기의 작용보다 리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33. 위 글의 두 학자에 대해 <보기>의 화자가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물의 본성은 타고난 기호 내지 지향성일 뿐이다. 본성은 불변하는 형이상학적 단위로서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선악의 문제도 기질에 따른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선을 택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인간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것은 본성과 기질을 넘어서 주체성을 가진 인간의 실천의 문제일 뿐이다.

- ① 이황의 입장에서 사물의 형이상학적 본성을 강조하며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② 이이의 입장에서 리와 기의 차이점을 논하며 기질의 능동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 ③ 두 학자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며 인간의 선택과 결단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두 학자의 주장에 대한 기존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그들의 핵심 주장을 전하고 있다.
- ⑤ 두 학자의 주장을 절충하여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34.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공평하고 올바름.
- ② ㉡: 대상에 대한 인식이 선천적으로 가능함을 밝히려는 것
- ③ ㉢: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
- ④ ㉣: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미루어 짐작함.
- ⑤ ㉤: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됨.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벗춤도 혀려 하고 돌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쓸려뇨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나
오늘리 부족(不足)커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하랴
이 뉘히 안자 보고 저 뉘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흔 마음의 브릴 일리 아조 업다
쉴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야
다만 흔 청려장(靑藜杖)이 다 드되어 가노미라
술리 닉엇거니 벗지라 업슬소나
블니며 툇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지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을프락 폭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넘고넘고 일월(日月)도 흥가하다
- 송준, 「면양정가(俛仰亭歌)」 -

(나) 온갖 풀이 모두 다 뿌리 있으나 百草皆有根
부평초 홀로이 뿌리가 없어 浮萍獨無蒂
물 위를 두둥실 떠도는 신세 汎汎水上行
언제나 바람에 불려다니네 常爲風所曳
살려는 의지가 없으리요만 生意雖不泯
붙인 목숨 진실로 작고 가늘어 寄命良瑣細
연잎이 너무도 업신여기고 蓮葉太凌藉
마름*은 줄기로 칭칭 감아 조이네 荷帶亦交蔽
한 연못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도 同生一池中
왜 이다지 몹시도 어긋나는가 何乃苦相戾
- 정약용, 「고시(古詩) 7」 -
*마름: 연못이나 늪에 나는 마름과의 한해살이 풀

(다) 어느 해인가 내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집 근처에 소나무 네다섯 그루가 있었는데 키가 몇 자밖에 되지 않고 작달막했다. 나뭇가지는 아래로 드리워져 긴 것은 땅바닥에 닿고, 짧은 것은 줄기를 가릴 정도였다. 구부러지고 뒤틀려 엷힌 가지가 마치 뱀이 서리어 다투는 듯, 수레 덮개가 활짝 펴진 듯, 오색실로 만든 술이 감기고 엷힌 듯 들쭉날쭉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놀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타고난 성질이 어찌 저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중략>
“저 소나무는 정말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구나. 자기의 선한 본성을 욕심 때문에 잃은 자들을 보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몸놀림은 약삭빠르다. 또 꾀이한 행동을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아 칭찬만 받으려고 하며, 남의 비위나 맞추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이를 고상하게 여긴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런 사람을 곧은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 비추어 본다면 어떠하겠는가? 또 굳센 호연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에 비추어 본다면 어떠하겠는가? 세상에 아첨하면서 구차하게 남의 환심이나 사려고 하는 자들과 저 작은 소나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아아,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그 나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자신을 수양하여 본성을 기르고 해를 당하지 않으면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만물도 제 모습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 나무는 꺾이고 휘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이 어찌 공자께서 ‘자신의 참모습을 잃고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죽음만 모면했을 뿐이다.’라고 한 말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아아, 그리고 보면 저 나무에게도 슬픈 일이로구나.
오래전에 숲에서 자라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본 적이 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들은 우레가 치며 비가 쏟아지는 데도 우뚝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우러러 공경할 뿐 애완물처럼 어루만지면서 좋아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으니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어떤 사물을 어여뵈여기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구실이 되기도 하며, 어떤 사물을 공경하는 것은 그 덕을 높이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무릇 제 본성을 해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받으려고 했던 결과요, 제 본성을 지켜 우러름을 받는 것은 자기 수양의 결과이다. ㉤군자는 이런 예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뿐이니, 저 소나무를 닮아 무엇하겠는가?”
- 이식, 「왜송설(矮松說)」 -

3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관조적인 자세로 사물의 속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다른 사물에 의지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 부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대조적 어휘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화자와 현실의 조화를, [B]는 화자와 현실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B]는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나타나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청유형 어미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37. (나)의 ‘부평초’와 (다)의 ‘작은 소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평초와 작은 소나무는 모두 삶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 ② 부평초와 작은 소나무는 모두 외부와의 화해를 바라고 있다.
- ③ 부평초는 갈등의 원인을 내부에서, 작은 소나무는 외부에서 찾고 있다.
- ④ 부평초는 현실의 문제에 저항적으로, 작은 소나무는 순응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⑤ 부평초는 작가의 처지가 투영된 대상이고, 작은 소나무는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 속에서 빠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반복과 열거를 통해 거리낌 없이 풍류를 즐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설의적 표현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역설하고 있다.
- ⑤ ㉤: 본성을 지키기 위한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다산이 경상도 장기로 유배된 직후 지어졌으며 시기와 질투, 모함이 끊이지 않는 조정에서 언제나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정조의 승하로 위태로운 처지가 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한 한 나라 조정에서 한 임금을 섬기며 일하건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무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① ‘풀’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을 나타내고 있군.
- ② ‘떠도는 신세’는 정조의 승하로 위태로운 처지가 된 다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바람에 불려다니네’는 정치적 수난으로 인해 제 뜻대로 살지 못하는 다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칭칭 감아 조이네’는 중상 모략하는 무리로 인해 유배된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군.
- ⑤ ‘몹시도 어긋나는가’를 통해 당쟁의 폐해를 비판하는 다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40~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20세기의 과학혁명이라고 한다.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는 3차원 공간에 절대성을 지닌 시간이 따로 있는 고전적 시공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고 개념을 바꾼 것이 상대성이론이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고전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자 같은 미시적 세계를 올바르게 기술하기 위해서 탄생하였다. 이 양자역학의 성립은 빛의 정체를 탐구하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뉴턴은 빛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라고 주장하였고, 이것은 그의 권위에 의지하여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토머스 영의 겹실험 실험은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였다. 이 실험의 방법은 먼저 한 개의 실험을 거쳐 생긴 빛이 다음에 설치된 두 개의 겹실험을 지나가게 하여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때 빛이 파동이나 입자이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 즉 빛이 입자라면 일자 형태의 띠가 두 개 나타나야 하는데, 실험 결과 스크린에는 예상과 다른 무늬가 나타났다. 마치 두 개의 파도가 만나면 골과 마루가 상쇄와 간섭을 일으키듯이,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은 밝아지고 상쇄 간섭이 일어난 곳은 어두워지는 간섭무늬가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빛의 파동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실험적 사실이 나타났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빛은 광량자라고 하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광량자설을 주장하였다.

금속에 자외선을 쏘일 때 그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한다. 빛을 입자라고 가정하면 광전 효과는 두 입자의 충돌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에너지 [A]가 한계진동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보다 작으면 전자는 금속 내부에 갇혀 표면에서 방출되지 못한다. 그러나 진동수가 한계진동수보다 큰 경우 전자는 운동에너지를 얻어서 방출된다. 이때 방출되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은 입자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빛의 파동성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므로 이것은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이중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성도 갖고 있다면, 입자인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을까? 1924년 드 브로이는 빛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면 입자인 전자나 양성자도 이중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뒤에 데이비슨과 거머는 전자의 에돌이 실험을 ㉡통해 빛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물질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 실험 결과는 당시 입자와 파동을 서로 반대의 성질로 규정하여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고전역학의 물리학적 상식을 흔들어 놓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이 탄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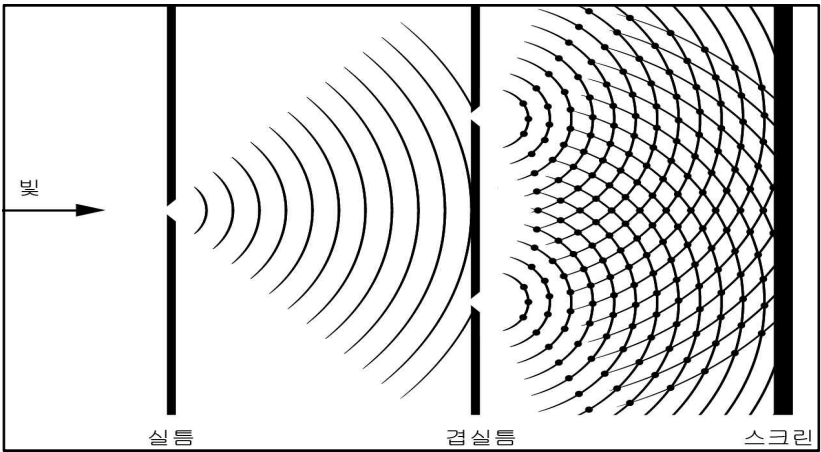
이렇게 탄생한 양자역학은 현대 전자 기술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전자 기술의 소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미시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양자역학이기 때문이다.

* 한계진동수: 광전자가 방출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진동수.

4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뉴턴의 빛의 실체에 대한 주장은 실험적 검증을 통해 정설로 확립되었다.
- ② 토머스 영의 실험은 빛의 실체가 파동이라는 기존 학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③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량자설을 주장하였다.
- ④ 드 브로이의 주장은 빛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은 고전 역학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이론의 탄생을 낳았다.

41. 아래는 토머스 영의 겹실험 실험을 설명한 그림이다. 스크린에 나타난 ㉠결과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42.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역학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 물리량의 측정값이 불확정하다는 것은 측정 기술이 불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는 임의의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치의 확정성과 운동량을 나타내는 파장의 확정성은 서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입자성과 파동성이 서로 공존한다는 것이다.

- ①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은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겠군.
- ② 고전역학과 불확정성원리는 전자의 존재 형태에 대한 견해가 다르겠군.
- ③ 고전역학은 전자의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았겠군.
- ④ 불확정성원리는 고전역학과 달리 미시적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겠군.
- ⑤ 불확정성원리는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는 전자 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되겠군.

43.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아무 것도 없는 ㉠땅에 바위가 박혀 있다고 상상을 해 보자. 땅에 박혀 있는 바위를 파내기 위해서 계란을 아무리 많이 던져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박혀 있는 바위와 ㉡같은 크기의 바위를 던지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더 큰 바위를 던지면 튀어나온 ㉢바위가 생길 것이다.

	㉠	㉡	㉢
①	자외선	한계진동수	전자
②	자외선	운동에너지	전자
③	자외선	한계진동수	광전자
④	금속	운동에너지	광전자
⑤	금속	한계진동수	광전자

44. ㉠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망원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 ② 그는 옆집 사람과 서로 통하고 지낸다.
- ③ 그는 정보 과학에 환히 통한 권위자이다.
- ④ 그는 준비 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얻었다.
- ⑤ 그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빨래를 널었다.

[45~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별주부가 용왕전에 여쭙오되, “토끼간이 출입한다는 말이 『사기』에도 없사옵고 이치에도 부당하니, 배를 갈라 간 없으면 제가 인간세계 또 나가서 보름전 토끼 잡아 올테니, 배 가르고 보옵소서.”

토끼가 들어본 즉 할 수 없이 죽겠구나. 주부가 말 못하게 막아야 쓰겠거든 주부를 돌아보며, “내 아까 네 말씀을 용왕전에 하자 하되 만 리에 함께 고생하며 맺은 정이 있어 말하지 말자 했더니, 네놈이 하는 거동 갈수록 방정이다. 처음 나를 만났을 제 저 사정을 털어놓았으면 그 날이 보름날 우리 식구 수백 명이 함께 간을 빼어내니, 그 중에 나이 늙어 약 많이 든 좋은 간을 여러 보를 주었을 것을, 속이 그리 음험하여 베풀하러 수궁 가자 속일 꾀만 하니 그것이 첫 번 허물, 대왕의 환후 시급하니 너고 나고 또 나가서 간을 어서 가져와야 치료를 하실 텐데, 나만 어서 죽이라니 네놈의 생긴 형용 눈은 가늘고 다리는 짧고 긴 목과 뽀족한 입, 환란은 함께 누릴 수는 있어도 안락을 함께 누릴 수는 없음이라, 나를 죽여 간 없으면 어떤 토끼 다시 보리? 내가 수궁 베풀 하자고 너를 따라 간다는 말이 산중에 낭자하였으니, 나는 다시 안 나가고 너 혼자 또 나가면 산중 우리 동물들이 날 다려다 어디 두고, 뉘 속이러 또 왔는가, 토끼잡기 고사하고 네 목숨 어찌 되며, 너 죽기는 네 죄로되 대왕 환후 어찌 되리? 의사는 전혀 없고 어거지 말을 저리 하니, 아나 옛다. 충신 좋제, 나라 망할 망신이제. 내 목숨 죽는 것은 조금도 한이 없다. 독수리 사냥개에게 구차히 죽지 말고, 수정궁 용왕 앞에 백관 버려 서고 칠 척이나 되고 용무늬 새겨져 있는 잘 드는 칼로 이 배를 갈랐으면 그런 영화 있겠느냐? 아나 옛다. 배 갈라라. 배 갈라라.” 왈각왈각 배 내미니 주부는 할 말 없어 두 눈만 까막까막. 용왕이 본즉 그리될 일이거든 만조를 돌아보며, “저 일을 어찌할꼬?” 병부상서 준어 여쭙오되,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번에 드러났을 때는 그 가운데 가벼운 죄를 따라 처벌하고 오직 형벌은 될 수 있도록 공홀히 임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저 토끼는 짐승으로 배속에 간 있고 없음이 암만해도 의심이니, 경솔하게 배를 갈라 간이 만일 없사오면 죄인을 신중히 심의하는 것이 못 되오니 가르지 마옵소서.” 병부상서 숭어 여쭙오되, “이왕 아니 죽었으면 ‘향기로운 미끼에는 반드시 죽은 고기가 있다’ 하니 토끼의 제 마음을 감동하게 하옵소서.”

용왕이 좋다 하고 성을 내었다가 짐짓 웃음을 지어, 별주부를 꾸짖는데, 토끼를 항상 존칭하여,

“토 선생의 하는 말씀 꼭 그리될 일이다. 첫 번 사정 이야기 안 한 것이 내가 매우 미련하다. 이 내력 하였다면 두 편 다 좋을 것을, 지난 일은 논하지 말고 토 선생님 부축하여 전상으로 모셔 오라.”

<중략>

그럭저럭 문답하며 창해를 다 지나고, 옥교변에 도착하여 토끼는 앞에 서고 주부는 뒤따를 때, 토끼의 분한 마음 주부의 지른 죄를 호령할 터이나, 저 단단한 주둥이로 팔다리 꺾물고서 물로 도로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겠구나. 바다빛이 안 보이도록 한참을 훑쩍 가서 바위 위에 높이 앉아 주부를 호령한다.

“이놈 자라야! 네 죄목을 의논하면 죽여도 아깝지 않도록

괘씸하다. 용왕이 의사 있어 나같이 총명하고, 나의 구변 너 용왕같이 미련터면, 아까운 이 내 목숨 수중원혼 되겠구나. 『동래박의』라는 책을 보니 ‘짐승이 미련하기가 물고기나 짐승이나 같다’ 더니 어죽 미련하기 모죽보다 더 하도다. 오장에 붙은 간을 어찌 출입하겠느냐? 네 소위 생각하면 산중으로 잡아다가 우리 동무 다 모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폭 삶아서 백소주 안주감 초장 찍어 먹을 테나, 본사를 생각하면 요임금을 보고 짓는 도척의 개나 계포가 무슨 죄리오? 저마다 자기의 임금을 위하였으므로 심분 짐작하였으며 만경창과 네 등으로 왕래하니, 죽고 사는 고생을 함께 하였기에 목숨 살려 보내주니, 그리 알고 돌아가되 좋은 약 보내기로 네 왕에게 허락하니, 점잖은 내 도리에 어찌 식언하겠느냐? 내 똥이 매우 좋아 열을 내리게 한다 하고 사람들이 주워다가 앓는 아이를 먹인다. 네 왕 두 눈망처에 열기가 과하더라. 갖다가 먹이면 병이 곧 나으리라.”

작은 총알같은 똥을 많이 누어 칙익에 단단히 싸 자라 등에 올려 놓고 칙으로 감아 주니, 주부가 짙어지고 수궁으로 간 연후에 구덩이 안에서 달리는 짐승이라니, 토끼 오직 좋겠느냐, 깡장깡장 뛰어가며 방자하게 뽀내 자랑하는 기색이 무섭구나.

[A] 이 때에 주부는 수궁에 들어가서 용왕이 토끼똥 먹고 병이 나아 충신되고, 토끼는 신선 따라 월궁으로 올라가서 이 때까지 약을 쥘으니, 자라와 토끼란 것이 동시 미물로서 장한 충성 많은 의사 사람하고 같은 고로 타령을 만들어서 세상에 유전하니, 사람이라 이름 달고 토끼 자라만 못하오면 그 아니 무색한가?

- 작자미상, 「토별가(兔鼈歌)」, 신재효 정리 -

4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개입 없이 사실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이 공격적 말투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 ④ 주인공의 대범한 성격을 부각하여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해학적 표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6.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숭어는 비유적 표현을 써서 용왕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용왕은 토끼를 달래기 위해 별주부를 나무라고 있다.
- ③ 토끼는 자신을 기만한 별주부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
- ④ 토끼는 좋은 약을 주는 것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 ⑤ 별주부는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백입니다.